



UNIVERSAL SEA&AIR CO.,LTD

Busan : 9F Busan Post Office B/D #1,3-Ga, Jungang-dong,Jung-gu,Busan

Seoul : RM1906, Renaissance Tower, 14 Mallijae-Ro, Mapo-Gu, Seoul

www.univsa.com

SUB : 2022년 2월 해운 Maret 동향 및 전망

§ 귀사의 익일변창함을 기원합니다.

지역	동향 및 전망
미주/캐나다	(*) 지역 동향 - 미 서안 및 동안 항만 적체현상 지속 (부킹 신청 출항일 기준 최소 1달전후 소요)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근로자 복귀가 더디짐 - 닝보항 CLOSE, 중국 춘절, 올림픽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동안지역 선복이 2월중순까지 풀렸음. 다만 다시 2월 말까지 선복 full booking 상태 중국발 선임 일시적인 하락. LA, TACOMA, VANCOUVER, SAVANNAH, NEWYORK까지 전체적인 PORT CONGESTION이 심각한 상황
유럽	(*) 지역 동향 - 전년비 임시 결항이 줄었지만, 유럽 주요 항구 적체가 아직 해소 되지 않아서 여전히 T/T 소요일이 긴 상태 # 영국 펠릭스토항의 경우 선박 대기일이 7~10일 소요 될 정도로 항만 혼잡 심화 # 블랙시트로 영국에 몰린 화물들로 인해 현재까지 영국 항만 적체 심각 - 스페이스 부족현상 지속 - 전체적인 스케줄 지연으로 인하여, 유럽->아시아 수입 스케줄경우 중국까지만 CALLING하고 스케줄 회복을 위해서 한국 SKIP하는 경우가 많아 짐.
중동/아시아	(*) 지역 동향 - 한 중 항로는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한 방역강화에 따라 항만적체 심화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고운임 지속 부산->상해/닝보 구간 특히 선복 부족, 선임 타 MAIN PORT 대비 높은 상황 중국-> 한국 구간 선복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 - 한 일 항로는 쉼링(선사별 할당선복) 제한함으로서 공급을 줄여 고운임을 유지 중 - 동남아 항로 물동량 증가로 지역 별 4자리수 선임이 지속 되는 중 - 중동 지역 항로는 운임 하락 하였지만, 일시적 현상으로 예상
대양주	(*) 지역 동향 - 1월 역대 최고 운임 찍고 ZIM line 신규 노선 개항으로 인해 매우 부족한 선복을 다소 채울 수 있을 예정
아프리카	(*) 지역 동향 - 여전히 중국에 많은 선복이 할당되어, 한국 발 공급은 부족함 상황이 지속됨